

연구노트

- 데이트 성폭행의 위험과 대응과제
이 미 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민 무 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데이트 성폭행의 위험과 대응과제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적 자유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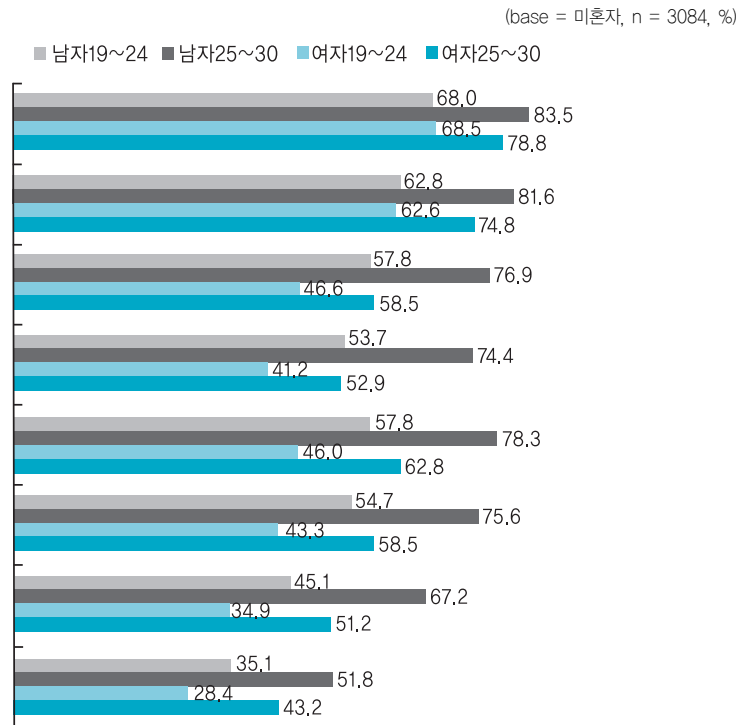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사회 20대 청년층은 그 어느 세대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 대다수에게 성관계는 ‘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데이트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여성의 성(性)은 지켜야할 정조로 인식되기보다는 사랑의 확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가 키스 이상의 성행동 경험이 있고(김승경, 2005), 젊은이의 70% 이상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미정, 2004).

전국 11개 대학의 남자 407명, 여자 6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채규만 외(2004)의 연구에서 남자 75.9%, 여자 30.7%가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랑하면 혼전 성관계가 좋다는 점에 대해서 남자 86.8%, 여자 62.3%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혼전 성경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남자 73.6%, 여자 62.8%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4년제 대학 재학생 남녀 954명을 대상으로 한 공미혜 외(2008) 연구에서는 남자 66.0%, 여자 21.9%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세-30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20대 후반 남성은 67.2%, 여성은 51.2%로 나타나, 여성도 절반 이상이 성관계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미정 외, 2009: <그림 1> 참조). 위의 그림에 의하면, 20대 젊은이들은 다양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이 될 수록 성적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 위험의 증가

이처럼 20대 청년층에서 성의식과 성행동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관련 성규범이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관련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성의 자유화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등 성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심각한 형태의 성폭력인 성폭행 즉 강간의 위험도 청년층 섹슈얼리티에 도사리고 있다.

〈그림 1〉 성별 · 연령별 지난 1년간 성행동 경험(미혼자)



*수치는 '경험' 비율임

*자료: 이미정 · 변화순 · 김은정, 2009, 『청년층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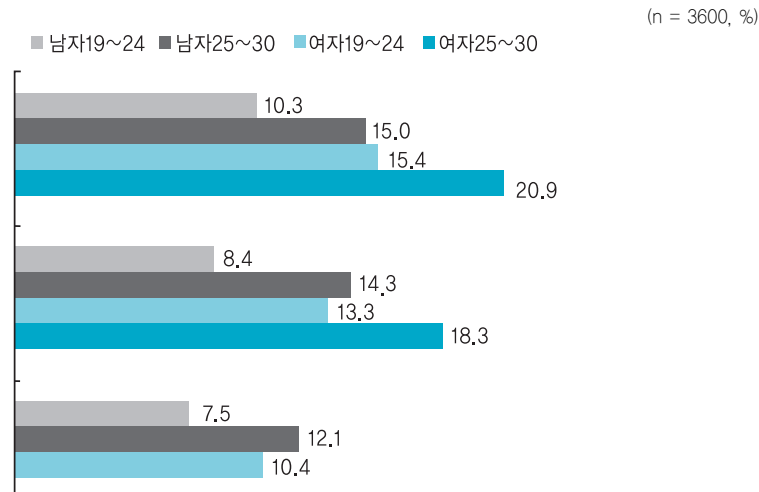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데이트 성폭행 이슈가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 의하면 여자 대학생의 20%~25%가 데이트 상대가 강제로 성교(sexual intercourse)를 시도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애원하거나,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싸워서 그 행위를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Kanin · Parcell, 1977). 이들의 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83%가 성폭력(sexual aggression)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대학생의 26%는 상대여성을 공격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성교를 강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Kanin · Parcell, 1977). 라파포트와 버크하트의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15%가 데이트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sexual intercourse)를 가졌다고 시인했다(Rapaport · Burkhart, 1984).

‘미즈 매거진의 캠퍼스 성폭행에 대한 프로젝트(the Ms. Magazine Project on Campus Sexual Assault)’에서는 32개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6,159명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self report)으로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Koss, 1987). 미국 전국 고등교육 기관의 재학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국가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 NCS)의 공식 통계와 차이를 보인다. 국가범죄조사(NCS)는 16세~24세 여성이 보고한 강간의 60%~75%가 낯선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

즈 매거진 프로젝트의 조사결과는 피해자 84%가 잘 아는 사람이나 데이트 상대자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 프로젝트 조사대상 여성의 4분의 1이 강간이나 강간미수 피해경험이 있었는데,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및 강간 미수의 57%가 데이트상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Koss, 1987). 또 다른 연구(Levy, 1984)는 인터뷰에 응한 젊은 여성 중 10%가 데이트 중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힌다(Bateman, 1990). 조사 주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범죄조사(NCS)에서는 범죄 상황을 묻는 문항들이 잘 아는 사람과 관련된 성폭행 피해를 응답자가 밝히게 하는데 적합하게 고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Koss, 1989).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데이트 성폭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경상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미혜 외(2008)의 연구에서 '상대방의 강요'로 성관계를 한 경우는 남자가 2.5%, 여자는 10.1%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남녀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윤경(2002)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강간이 6%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미혼남성 305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을 다룬 남원경(2008)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강간이 4.3%로 나타났다. 2009년 대전지역 남녀 대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트성폭력 자료를 보면, 데이트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키스, 애무, 성관계가 발생했다'에 대해 여자 10.8%, 남자 8.5%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같은 항목에 대해 여자 3.3%, 남자 14.9%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대전 YMCA 성폭력상담소, 2009).

〈그림 2〉 성별 · 연령별 사귀는 사람이 물리적 행사한 성적행위 : 사귀는 사람에게 당함



*수치는 '경험' 비율임

*자료: 이미정 · 변화순 · 김은정, 2009, 『청년층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림 2〉는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19세-30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의 결과물이



다. 사귀는 상대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키스, 애무, 성교 당한 것에 대해서 연령과 성별로 분포를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는 20대 후반 여성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 상대방의 물리력에 의해서 성교를 당한 비율은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15.4%로 높게 나타났는데, 여타 연구에서 데이트 강간을 보고한 비율보다 훨씬 높다. 강제 성관계 경험을 묻는 방식에 따라서 응답에 차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성폭행이나 강간 피해를 묻는 방식에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숨겨진 범죄, 데이트 성폭력

친밀한 사이,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당사자에게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발생한 이후 성폭행으로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지 이후 주위의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데 주변 인들은 격렬한 애정표현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행은 피해는 있지만 인지되거나 처벌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도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을 ‘거친’ 성관계로 보아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현실에 우려를 표명한다(장영복, 1994).

구애과정에서 남성의 과감성과 공격성, 여성의 압전한 태도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통념은 청년층 남성과 여성을 성폭력 위험에 노출시킨다. 성의 자유화가 먼저 시작된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했고 이중 데이트 관계에 있던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사귀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의 근원을 찾아보면 남녀 간 의사소통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구애과정의 당사자가 성역할에 대해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발견된다.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당사자의 성적동의와 관련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성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 성폭행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간법은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적으로 개방화된 청년층 섹슈얼리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행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로서의 강간은 다른 범죄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애매모호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간에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해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Francis, 1996). 어둠속에서 뛰쳐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에게 당한 성폭력은 중범죄로 규정되고 있다(Francis, 1996). 그러나, 데이트 강간은 대체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명시적인 위협이 수반되지 않아 종종 합의되지 않은 섹스로 이해되고 있다. 데이트 강간이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적 상해는 종종 위법행위(actus reas)가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폭력은 종종 유혹으로 오해되기도 한다(Francis, 1996; Pineau, 1996).



서구에서도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데이트 성폭행 즉, 강간은 숨겨진 사회현상이었다. 데이트 성폭행은 데이트 상대에게 강제되는 성적 접촉인데, 피해자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침묵한다(Ferguson, 1998). 강간은 대인 범죄 중 가장 과소 보고되는 범죄이고, 아는 사이에서의 강간은 가장 보고 되지 않는 유형의 범죄로 숨겨진 사회현상이다. 상담가나 연구자들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이 오늘날 가장 흔한 종류의 강간 범죄라는 것에 동의한다(Ferguson, 1998).

미국의 강간피해자 지원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강간 범죄의 70%~80%는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신고가 되지 않는다(Warshaw, 1994).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한 여성은 강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여성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책하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남성과 사회적 접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들과 정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자신의 능력에 절망을 느낀다(Warshaw, 1994). 사회적 신뢰를 형성했던 사람으로 부터 당한 강간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피해와 상처를 제공한다.

1990년대 여성단체가 주도한 성폭력 반대운동이 쉬쉬해왔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드러내어 일반인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일반인에게 각인시켰다. 그러나 아직 사귀는 사이에서의 성폭력은 아직 일반인에게 심각한 문제나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 성폭행 관련법 부재

우리나라에서 강간죄에 대한 형법의 규정이나 강간죄를 다루는 법원의 입장은 전통적이다. 관련법의 전근대성은 성의 개방화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비동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에 대한 재판부의 최협의 해석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추구를 어렵게 하고, 심리과정 내에 피해자의 '성적 정숙함'이 명시적·암묵적으로 도마에 오른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비동의 성관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못한다.¹⁾ 강간 사건의 경우 무형의 폭력과 협박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초래하여 피해자를 저항불능상태에 처하게 하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고 단지 물리적 차원의 폭행과 협박이 고려되고 있다.²⁾

기성세대에게 사귀는 사이에서의 강간은 생소할 것이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남성의 시각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늘날 청년층의 성적 자유를 고려할 때 애인 사이라는 것은 성관계가 허용되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은 거친 성관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기성세대 남성을 지배하는 듯하다(이호중, 1991).³⁾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간의 성립여부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한 아는 사이

1)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박선영, 2002).

2) 해석하더라도 현행 강간법과 법원이 해석은 정조란 여자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여성은 죽음을 불사하여 강간에 저항하기를 요구하는 전통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선영, 2002).

3) 신윤진(2004)은 상대의 거부의를 무시하고 행한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이 아닌 '다소 난폭한 성관계'로 바라보는 판례에 대해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강간은 거친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 발생시키는 모욕적·폭력적 행위이다.



특히 사귀는 사이에서의 강제적 성관계가 강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현행 형법은 극한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강간 행위만 처벌하고 있고 재판부는 폭력과 협박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행실과 행동에 대해 탐문한다.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법이 추구하는 보호법익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강간 규제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은 암묵적으로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하던 전통적 사회의 통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 강간을 규제하는 현행법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성개방화 경향에 대처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적 자유의 확산으로 여성들이 법이 강간으로 규정되지 않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은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지 못한다(이호중, 1991). 비동의적 성관계는 법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성폭행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미한 상태이다.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관점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법관행은 관련법의 효과적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미경, 2004).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형법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성행위를 강간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강간죄의 법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신윤진, 2004; 장임다혜, 2009).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는 다양한 수위의 강제적 성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살인, 강도, 방화 등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강도죄와 법정형이 같은데, 형법에서 처벌하는 강간은 극악한 경우의 강간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장임다혜, 2009).

청년층은 성적 자유를 향유하지만 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성폭력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⁴⁾ 현재 우리나라의 강간법은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행법은 성적으로 개방화된 청년층의 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성의식과 성행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이들이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교육이나 법적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데이트 강간이라는 생소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 인식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자료 축적이 요구되며 이것이 관련법 개정과 사법기관의 관련법 운용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범죄관련 공식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발생이 20대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사건 대비 성폭력 피해자 고소율은 10% 미만으로(이미경, 2004) 경찰이나 대검찰청의 공식 범죄통계가 성폭력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사실이 감춰지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실제 성폭력피해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참 · 고 · 문 · 헌

- 공미혜 외(2008), 『대학생의 Sexuality 실태조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김승경(2005), "서울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관한 조사" 『여성연구논총』 20권: 155-168.
- 남원경(2008), 『미혼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가족학과 석사학위논문.
- 대전YMCA 성폭력상담소(2009), 대학생 데이트 성폭력인식조사 결과보고서 결과 요약본.
- 박선영(2002), "강간죄와 남근주의" 『시민과 변호사』 통권 100호, 서울지방변호사회.
- 신윤진(2004), "너는 강간당하지 않았어"- 강간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남성중심적 사고, 『나눔터』 2004년 3월 46호.
- 이미경(2009),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담론·전망』, 한울아카데미.
- ____ (2004), '북경행동강령' 선언 후 10년, 반성폭력 정책의 어제와 내일, 『나눔터』 2004년 여름호: 16-23.
- 이미정(2004), 『변화하는 성윤리와 포르노그래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호중(1991), "강간범죄와 형사사법적 통제: 여성학적 논의에 부쳐" 『형사정책 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영복(1994), "우리사회 성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청소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오늘의 청소년』 제9권2호: 44-49.
- 장윤경(2002),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임다혜(2009),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에 맞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채규만·정민철(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9권 4호: 869-886.
- Ferguson, Carroy U. (1998), "Dating Violence as a Social Phenomenon" in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Francis, Leslie (1996), "Introduction" in Leslie Francis(ed.) Date Rape: Feminism, Philosophy, And The Law . Th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Kanin and Parcell (1977), "Sexual aggression: A second look at the offended fema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6: 67-76.
- Koss, Mary P. (1987), "Outrageous acts and everyday seductions: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Romance, Rape and Relationships: A Conference on Teen Sexual Exploitation, Seattle, WA.
- Koss, Mary P. (1989), "Hidden Rape: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pp.145-168 in Maureen A. Pirog-Good and Jan E. Stets 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Prager.
- Levy P. (1984), Courtship Often A Violent Time, Minneapolis Tribune.
- Pineau, Lois (1996), "Date Rape: A Feminist Analysis," in Leslie Francis(ed.) Date Rape: Feminism, Philosophy, And The Law. Th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Rapaport, K and B. R. Burkhart (198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16-21.
- Warshaw, Robin (1994), I Never Called it Rape: the Ms. Report on Recognizing, Fighting, and Surviving Date and Acquaintance Rape. HarperPerennial.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민 무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의의

한국정부는 공식 문건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음을 천명하였다. 즉, 현재 우리 사회를 ‘단일민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생활양식 정립의 노력이 혼재된 단계’로 진단하면서 ‘단일민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를 해소하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생활양식 정립이 필요’(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12.17)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양대 기본 방향을 받아들인다고 볼 때, 향후 두 가지 측면으로의 전환과 준비는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나는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이주자들을 소극적인 정책 대상이나 일방적인 수혜자로 소외시키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주체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이를 위하여는 이주민과 내국 국민간의 소통과 이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매개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어야 한다. 특히, 내국인과 이주자간의 중간 매개자, 소통자로서 역할을 하는 많은 활동인력들(여기서는 다문화 전문인력으로 칭함)이 이러한 다양한 매개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이다.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현재 단계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향후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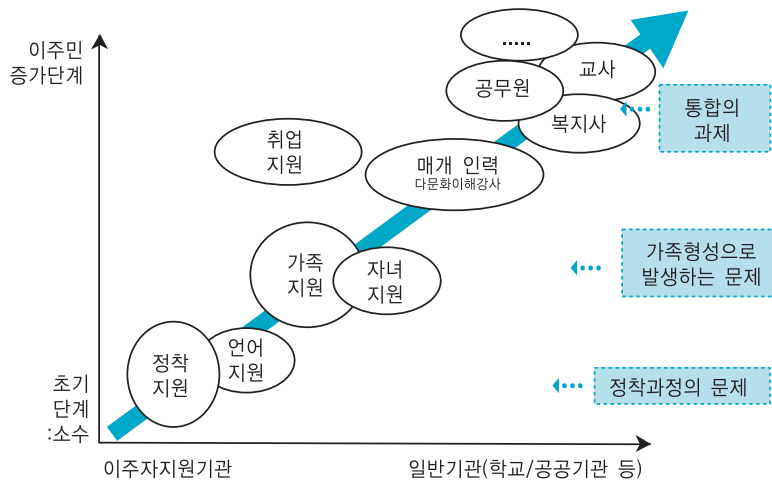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을 ‘기능적 전문성과 다문화적 역량의 소양을 갖추고 이주자 및 다문화 관련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기능적 전문성’이란 지식이나 기술(skill)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업무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문화적 역량’이란 다문화 사회에서 관련 인력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 기술 역량을 의미한다.

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문제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의 모습을 이주자 증가단계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도해로 표현

할 수 있다. 즉 이주민 증가가 소수인 초기단계에서는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나 이들의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력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이들과 내국인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인력 수요(예: 다문화사회 이해강사 등)가 증가한다.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교사나 공무원, 복지사 등 일반 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국내인과 이주자가 섞여있는 환경에서 이주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상당부분 요청받게 될 것이다.

〈그림 1〉 이주자 증가와 다문화 인력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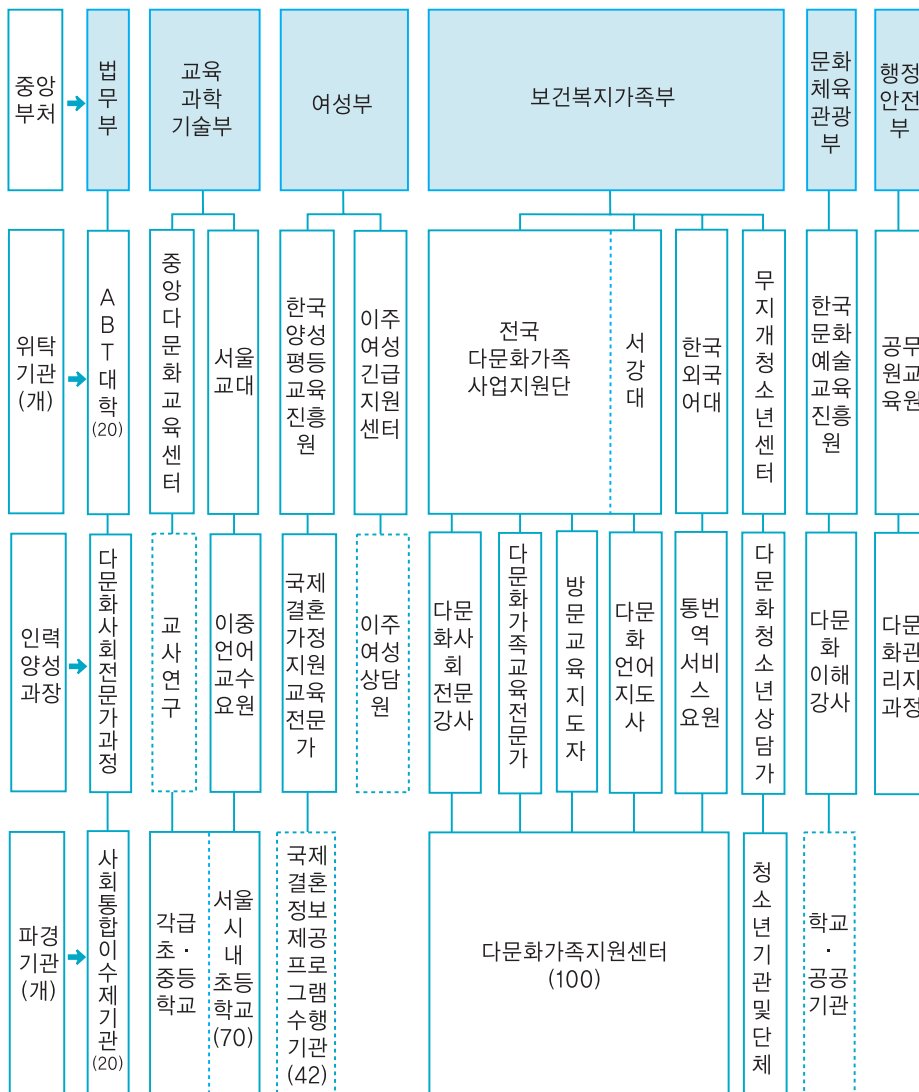
가. 부처별 추진체계와 문제점

2009년 현재 각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사업 관련 인력 양성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 형태는 개별 부처가 직접 이주자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모두를 지원하면서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한 후, 관련 기관에 배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추진체계 속에는 지역 교육청이나 시·도의 행정정책적 협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두 번째 추진체계의 형태는 개별 부처 산하기관이지만 이주자 업무가 주가 아닌 기관들이 단위 사업형태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받아 진행한 후, 일선 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이다. 이런 기관들은 본래 고유의 기관운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문화 관련 상담 및 이해 교육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단위사업별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지역단위의 행정체계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성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지정된 지역 기관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개별 부처 산하 기관이 아닌 대학들이 단위사업을 위탁받아 인력양성을 하는 형태가 있다.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사회전문가과정’을 진행한 20개 ABT(Active Brain Tower) 대학, 이중언어 교수요원(일선학교 파견 시, ‘이중언어강사’로 명칭 바뀜)을 양성한 서울교육대학교, 통번역서비스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세 번째 형태에 속한다. 이들 기관들은 개별 부처의 사업 필요와 단위 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특정 인력을 양성하였고, 따라서 이곳에서 양성된 인력이 배치될 기관 역시 사전에 정해져있다.

〈그림 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





나. 인력 분야별 양성현황과 문제점

현재 일정한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번째, 종사자 및 활동가들로서 이들은 다문화 및 이주자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핵심인력이지만 별도의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아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 가운데 선발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로서의 전문역량이나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개인이 각종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두번째, 다문화 강의인력의 문제이다. 현재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사한 명칭의 전문강사를 다양하게 양성하여 강의인력의 풀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현재까지 활용범위는 크지 못한 상황이다. 부처별로 양성과정의 목적을 분명히 차별화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세번째, 이주자 상담인력의 문제이다. 이주자 특성에 적합한 상담기법을 습득한 인력 수요가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분야이나 상대적으로 양성과정은 미흡한 수준이다. 관련 전문가풀이나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약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발과 인력양성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파악되었다.

네번째, 현장서비스 인력(방문교육지도사)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초기 이주여성들에게 면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인력으로서 광범위한 수준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소양교육과 함께 이주자를 대하는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매뉴얼화된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양성되고 있는 언어지원인력의 문제이다. 통번역요원이나 이중언어교수요원 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으로서 현재는 이주자(여성)를 활용한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며 복합적인 기능을 교육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전문화된 기능 위주로 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다문화 전문인력의 활동경험과 역량 진단

본 연구에서는 개인설문지를 통하여 현재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활동중인 332명의 종사 인력들의 교육 및 활동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이들 다문화 전문인력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나 다문화관련 업무 경력이 비교적 짧아 전문성 습득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별로 이수한 교육의 편차가 크며,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 이들의 활동은 크게 강의나 교육, 이주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과 활동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나 전문가의 부족을 애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은 업무별로 차이가 있다. 종사자와 단체 활동가 집단은 법률적 지식과 상담 및 사례관리기법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는데 비해 강사 집단은 교육학습 기법에 대한 교육욕구가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여러 양성 교육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현



장성 부족과 이론과 현장의 괴리가 만족도를 낮추고 있었으며, 또한 경력에 따른 인력의 업무 전문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여러 교육과정들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주자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심층상담을 위한 역량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이를 반영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요소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지식과 인식, 그리고 기술 세 가지 측면에서 5점 만점에서 3점을 조금 넘는 중간 수준의 역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이주자에 대한 인식 측면의 자기평가결과가 다른 인력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위탁기관 종사자보다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농촌지역보다 도시 지역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라. 결론

연구 결과, 다문화 전문 인력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양성과 활용 프로세스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분야에서 어떠한 인력수요가 있는지, 그러한 인력들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도록 길러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진단과 연구의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계획수립과 양성 프로그램의 진행, 나아가 활용까지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향후 부처에 따라, 기관에 따라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인력 양성체계를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종합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상당부분 일정한 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가족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복지적 성격이 강한 인력들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의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인력의 균형적인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오히려 과소 공급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인력은 이주자들에 대한 상담인력이었다. 단기적으로는 각 기관에 상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주자 상담영역을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 인력에 대한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교육을 받는 입장 모두 양성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의 전문성에 대한 갈증은 크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역량을 충분히 규명하면서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모든 다문화 전문인력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역량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담당 업무 전문 분야별로 특화되어 개발해야 할 역량요소를 면밀히 진단·개발하여 모든 양성 과정에 삽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KWDI 동정

- KWDI 아태개발협력포럼(2009. 11. 25)



▲ 폐회사를 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

- 베트남선진사례연구조사단 방문(2009. 11. 3)



▲ 좌로부터 3번째 김태현 원장, 4번째 베트남가족여성연구원 Nguyen Huu Minh 소장